여수市 '유명무실 위원회' 수두룩

산하 90곳중 24곳 지난해 회의 한차례도 안 열어

市, 실적·실효성 없는 위원회 과감히 폐지키로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회의조차 열리지 않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위원회 90개 중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66개로 나머지 24개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와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90개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고 있어 관련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직능·이익단체 관계자들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운영 실적과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참여가 부진한 위원들을 교체하기로 하는 한편 시민, 여성, 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dhkim@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웰빙식품 고흥 '취나물' 수확 한창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한반도 최남단 고흥에서는 '봄의 전령'인 취나물 수확이 한창이다. 고흥산 취나물은 바다 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어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여수·순천·광양 3개시 협력 '삐걱'

자치단체간 미묘한 신경전

'3개시 행정협' 개최도 불투명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각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기 마다 개최키로 한 '3개시 행정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은 지난해 11월 순천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동부권 현안 논의를 위해 분기마다 1차례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 간 미묘한 신경전 등으로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협의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순천대 공대의 광양이전,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문제 등 동부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 문제 등으로 순천시와 관계가 불편해진 상태에서 협의회를 개최해봐야 모양새만 좋지 않을 것 같아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후 협의회를 다시 열려고 한다"며 "다음달 중 실무 공무원들이 만나 3개시 공무원 체육대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3개 시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광양시 투자유치 성과

인구 14만명 돌파

광양시 인구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4만명선을 돌파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14만36명을 기록했다.

1995년 12만9천명이었던 광양시 인구는 1998년 광양컨테이너부두 개장 이후 7천여명이 늘어 최근 10년간 13만6천명대를 유지하다가 활발한 투자유치에 힘입어 14만명을 돌파했다.

또 광양시가 지난 2월 출산 장려금 지급, 전입 세대 지원, 보육·교육 장려 등을 골자로 하는 인구 늘리기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양지역은 포스코 후판공장 건설과 조선 및 관련기업, 물류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2만2천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여수 공무원, 금요일에 가장 친절"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월요일 가장 불친절

"공무원들은 금요일에 가장 친절하고, 월요일에는 친절도가 낮다"

여수시가 지난 3일부터 7일, 11일부터 18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벌인 결과 금요일인 7일과 14일이 가장 친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 직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무작위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금요일에는 전화를 받은 공무원 100%가 80점 이상을 받았다. 반면 월요일인 3일과 17일에는 80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이 71%와 84%로 친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금요일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월요일의 경우는 '월요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새얼굴

"시민들에 믿음 주는 경찰상 정립"

이상기 순천경찰서장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기(53) 신임 순천경찰서장은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이 서장은 지난 82년 간부후보생 30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총무담당, 경찰청 홍보 2담당,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선화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치안활동 강화 범죄예방에 최선"

김학중 고흥경찰서장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치안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학중(53) 고흥서장은 "지역실정에 걸맞은 치안활동을 전개, 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으로 지난 78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경찰특공대, 형사부, 보안부, 광주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고명자씨와 사이에 2남1녀가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061) 653-8444	목 포	(061) 276-9200	나주시	(061) 332-5544
광 양	(061) 792-8111	강 진	(061) 434-6830	나주군	(061) 332-7764
순 천	(061) 746-8111	무 안	(061) 452-8535	담 양	(061) 383-8111
고 흥	(061) 842-2121	신 안	(061) 243-3758	영 암	(061) 473-2340
구 례	(061) 783-8111	완 도	(061) 554-6677	장 성	(061) 392-2100
곡 성	(061) 362-8111	영 광	(061) 351-0055	장 흥	(061) 863-8822
보 성	(061) 853-9700	진 도	(061) 543-0100	화 순	(061) 374-4423
		함 평	(061) 324-8111	광 산	(062) 944-0444
		해 남	(061) 534-5151		